

구례군, 섬진강 수해 재발방지 만전... 홍수방호벽 등 설치

서시천 일원 임시 홍수방호벽 설치 및 소하천 하상정비 구 문척교 임시 제방 구축 준비 완료 "예방에 만전 기해"

구례군이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수해피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항구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까지 1,700억 원 규모의 지구단위종합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완료 전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쳤다.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당시 낮은 제방 높이로 인해 물이 넘쳤던 서시천 일원에 임시 홍수방호벽을 설치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제방을 보축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5개 현장은 하천 내 하상정비

를 마무리했다. 구례읍 봉서리와 문척면 월전리 일대 침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됐던 구 문척교는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즉시 임시제방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에 톤마대 등 자재를 비치했다.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7개 현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 등을 활용하여 사면보호 조치를 완료했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8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유영광 부군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등을 통해 홍수대비태세를 갖추고 더불어 공사기간 중 예방조치를 통해 군민들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2020년 섬진강 수해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구례군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7개소를 신설하고, 지방하천 2개소(서시천, 백연천)와 소하천 5개소(봉서천, 죽연천, 구성천, 전천천, 월평천)를 정비하고 있다. 사업은 2023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구례군 관내 지방하천 4개소(중산천, 흥대천, 토지천, 마산천)에 대해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여름 피서는 곡성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 행사 질서 확립 중점 기간 운영

휴가철을 맞아 곡성군이 주요 관광지에서 생활 방역 수칙 준수 계도와 올바른 행사 문화 지키기에 나섰다. 곡성군은 행사 질서 종합 대책을 통해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를 건전한 관광객 맞이 행사 질서 확립 중점 기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 중 곡성군은 도립사 계곡, 압록유원지, 태안사 계곡 등 주요 관광지 9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0여 명의 행사 질서 계도 요원을 배치했다.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중점 점검, 피서지 생활 쓰레기 관리, 무단 투기 및 무단 취사 등 각종 무질서 행위 방지 활동을 통해 질서 있고 올바른 행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 동안에 곡성군은 주요 물놀이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시설 점검, 안전 요원 배치에 대한 사항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가격 표시 미이행 여부 등 물가 단속도 실시한다. 방문객이 안심하고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유입 차단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을 중점적으로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여름 우리 군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화순군, 블랙베리 찰옥수수 출하 시작

백화점 등에 출하...안토시아닌 풍부·당도 15° 내외로 맛도 좋아

화순군이 특산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랙베리 찰옥수수 생산과 출하가 시작됐다. 군은 춘양과 도암면 등 11농가가 2ha 규모의 실재 재배한 블랙베리 찰옥수수를 7일부터 백화점 등에 출하한다고 밝혔다. 블랙베리 찰옥수수는 줄기, 잎, 속대까지 흑

색을 띠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기능성 옥수수로 당도가 15° 내외로 맛도 좋아 찰옥수수 집중 출하기에 특산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는 품목이다. 삶거나 찌서 먹어도 되고 차로 끓여 먹거나 옥수수밥을 해 먹으면 맛도 좋고, 예쁜 빛깔을 체험할 수 있다.

군은 새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신품종을 도입해 종자재, 농자재, 재배 기술 매뉴얼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터넷 판매,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와 사전 계약재배를 추진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창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블랙베리 찰옥수수는 빛깔이 예쁘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차, 빵 등 다양한 용도로 가공이 가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영산강 3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속도 나주시장직 인수위 요청...영산강 둔치 자전거길 400m구간 보수 완료

나주시가 민선 8기 윤병태 시장의 관광·경제 활성화 분야 공약인 '영산강 3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구간별 노면 재포장을 시작으로 첫 발을 뒀다.

나주시는 6월 초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노면상태가 불량한 영산강 둔치 자전거길 노후 400m구간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수공사는 나주를 관통하는 영산강 둔치 자전거길 이용객들이 일부 구간 노면 균열과 아스팔트 재료 분리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해 보수공사를 인수위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달 해당 구간 노면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에 즉각 착수해 이달 1일 완료하고 자전거 길을 개통했다.

아울러 담양 용소에서 나주, 목포 등을 경유하는 총 133km구간 영산강국도중주자전거길



에 포함된 나주시 43km구간 친수구역 내 불량 자전거길 점검·보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국비 71억66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양곡교 ~ 양암바위'(1km), '느리지전망대'(1.2km)에 대한 영산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공사를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활성화 저자초청 독서특강

담양군은 8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4회에 걸쳐 '저자초청 독서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리얼인문학 박소영 대표를 초청하여 저서인 '랜선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예술가과 창작의 영감을 주었던 명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가자와 소통하는 양방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8월 25일 빈센트 반 고흐, 9월 22일 어니스트헤밍웨이, 10월 13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0월 27일 찰스 디킨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며, 에듀센터 교육장(담양청소년문화의집 3층)에서 각각 오후 7시에 진행된다.

7월 29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담양군청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거나 군 자치행정과(061-380-3182)에 문의 후 팩스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담양=박종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안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